

한국어에 있어서 초점의 종류와 초점사

이예식

(경북대학교)

yaesheik@knu.ac.kr

1. 도입

- 목적: (i) 한국어의 초점의 실현과 관련하여 부사적 첨사 (particles)과 조사들 (특수조사 포함)의 역할이 무엇인지 밝혀본다.
(ii) 한국어에 있어 격조사의 출현이 배제성(exhaustivity)유발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밝히고, 배제성이 화용적인 단계함축 (scalar implicature)의 한 현상임을 보이고자한다.

2. 이론적 배경

- 초점의 정의:
 - (i) Functionalists' view: focus partitions two parts, foreground and background, and it identifies the former (Halliday 1970).
 - (ii) The component of a pragmatically structured proposition whereby the assertion differs from the presupposition. Unlike topic, focus is, by definition, and unpredictable element of a proposition. (Lambrecht 1994).
- 초점 의미기술: Rooth's (1985) Alternative Semantics and Structured Meaning approach (von Stechow 1990)
 - Three constituents of a sentence with a focus:
 - (i) F: Focused Part
 - (ii) OP: Focus particle or operator
 - (iii) B: Background
 - Representation: $OP(\langle B, F \rangle)$
- (1)
 - a. John introduced Mary **only** to [F SUE]
 - b. **Only**($\langle \lambda x[\text{introduced}(j,m,x), \text{SUE} \rangle$)
 $= \forall x[\text{introduced}(j,m,x) \wedge \text{introduced}(j,m,s) \rightarrow x=s]$
- 초점사/운용자 (Focus Operator)?

초점사(운용자)는 초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대체로 문장 내 움직임이 자유로운 첨사들이 이 초점사의 역할을 한다. 영어의 경우 *also, even, only, at least, at most*, 등이 초점운용자의 역할을 한다.

○ 자유초점과 묶인 초점 (free focus and bound focus)

초점을 가진 문장에서 위에서 말한 초점사/운용자가 명시적으로 표현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의 초점을 ‘묶인’ 초점이라 하고 후자의 경우의 초점을 ‘자유’초점이라 한다. 구조화된 명제 이론 (structured meaning approach)에서 이 초점사는 구조화된 명제를 보통의 명제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유초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illocutionary operator들이 자유초점을 묶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자유초점이란 있을 수 없다 (Jacobs 1984, Krifka 1992, Hong 1995, Lee 1995). 초점 의미론의 핵심 작업중의 하나는 이 초점사들의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다.

2. 한국어의 초점사 자료

(2) (i) 의존형태소 (조사, 특수조사)

- a. 질문: 누가 왔니?/누구를 만났니?
대답: [F철수-가] 요./[F철수-를] 만났어요.
- b. [F철수-도/조차/까지/마저] 오지 않았어요.
- c. [F철수-만] 왔어요.
- d. [F철수-는] 오지 않았어요.

(ii) 독립형태소

- a. 심지어 [F철수-가] 오지 않았다.
- a'. 철수가 심지어 [F오지-를] 않았다.
- b. 단지/오직 [F철수-가] 합격했을 뿐이다.
- b' 철수가 단지/오직 [F합격했을] 뿐이다.
- c. 또한/역시 [F철수가] 왔어요.
- c' [F철수가] 또한/역시 왔다.
- d. 적어도 철수가 고기를 [F세 마리]를 잡았다.
- d' 철수가 적어도 고기를 [F세 마리]를 잡았다.
- d'' 철수가 고기를 적어도 [F세 마리]를 잡았다.
- e. 많아야 철수는 고기를 [F세 마리]를 잡았다.
- e' 철수는 많아야 고기를 [F세 마리]를 잡았다.
- d''. 철수는 고기를 많아야 [F세 마리]를 잡았다.

(iii) 독립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 a. 심지어 [F철수-도/조차/까지/마저] 오지 않았다.
- a'. 철수가 심지어 [F오지도/조차/까지/마저] 않았다.

- b. 단지/오직 [F철수-만] 합격했을 뿐이다.
- b' 철수가 단지/오직 [F합격-만]했을 뿐이다.
- c. 또한/역시 [F철수-도] 왔어요.
- c' [F철수-도] 또한 왔다./철수가 또한 [F오기-도] 했다.
- d. 적어도 철수가 고기를 [F세 마리 이상] 잡았다.
- d' 철수가 적어도 고기를 [F세 마리 이상] 잡았다.
- d'' 철수가 고기를 적어도 [F세 마리 이상] 잡았다.
- e. 많아야/기껏해야 철수는 고기를 [F세 마리-정도/이하] 잡았다.
- e' 철수는 많아야/기껏해야 고기를 [F세 마리 -정도/이하] 잡았다.
- d''. 철수는 고기를 많아야/기껏해야 [F세 마리 -정도/이하] 잡았다.

(3) 독립 초점사와 의존 형태소 초점사의 부적합한 조합

- a. ?심지어 [F철수-만] 오지 않았다
- a'. ??심지어 [F철수-정도] 오지 않았다.
- a''. *심지어 [F철수 이상] 왔다/오지 않았다.
- b. *단지/오직 [F철수-도/조차/까지/마저] 합격했을 뿐이다.
- b'. *단지/오직 철수가 [F합격 이상] 했을 뿐이다.
- b''. 단지/??오직 [F철수-정도] 합격했을 뿐이다.
- c. *많아야/기껏해야 철수는 고기를 [F세 마리-이상] 잡았다.
- c' *철수는 많아야/기껏해야 고기를 [F세 마리 -도/조차/까지/마저] 잡았다.
- c''. *철수는 고기를 많아야/기껏해야 [F세 마리 -이상] 잡았다.
- d. *적어도 철수가 고기를 [F세 마리-도/조차/까지/마저] 잡았다.
- d'. *적어도 철수가 고기를 [F세 마리-만] 잡았다.
- d''. *적어도 철수가 고기를 [F세 마리-이하] 잡았다.
- e. *또한/역시 [F철수-만] 왔어요.
- e' *또한/역시 [F철수-이상/이상] 왔어요.

위의 기초자료에서 [F,]은 초점 영역 (focus domain)을 표시하고 영역 내의 크고 진한 글씨체로 표시된 부분은 초점강세가 구현된 부분을 나타낸다.

위의 자료는 한국어의 초점의 실현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a. 초점 강세
- b. 의존형태소 초점사
- c. 독립형태소 초점사

그리고 (3)의 자료는 독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들은 각각 잘 맞는 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짝이 형클어졌을 때 비문이 됨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잘 상응하는 쌍의 예이다.

(5) 초점 운전자(독립형태소)	초점 표시자 (의존형태소)
심지어	-도/조차/까지/마저
또한	-도
단지/오직	-만
기껏해야/많아야	정도/이하
적어도	이상
??	-는/은
??	-가/이; 를/을

3. 논의

3.1. 독립 형태소 초점사와 의존 형태소 초점사의 역할

위의 자료에서 의존 형태소들은 대체로 초점영역의 끝 부분에 부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초점영역을 완벽히 지시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장 전체를 초점영역으로 취하는 경우 초점영역을 지시하는 역할이 퇴색하게 된다.

(5) 질문: 무슨 일이니?

대답: [F_{철수}-조차 시험에 떨어졌어요.]

의존형태소는 협의의 초점 (narrow focus)일 경우에 대체로 초점영역의 끝을 지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협의의 초점란 한 문장 전체를 그 초점영역으로 취하지 않고 일부분을 그 영역으로 취하는 초점을 의미한다. 의존형태소의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3)의 예문들이 왜 비문이 되는지를 우선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독립형태소 초점사가 전달하는 의미와 의존형태소의 의미와 서로 상충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립형태소의 기능은 영어의 초점 운전자와 그 기능이 동일하다. 그 이유는 첫째, 그들이 문장 내에서 비교적 이동이 자유롭다. 둘째, 가능한 초점표현의 가까이 놓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독립 형태소를 초점 운전자로 간주한다면 의존 형태소는 그 초점 운전자와 상충하는 의미적인 요소를 지니면서 초점표현에 부가되어 있음으로 어떤 종류의 초점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는 Lee (1995)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위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독립형태소 초점사: 초점운전자 (Focus Operator)의 역할을 한다.
- 의존형태소 초점사: 초점 표시자 (Focus Identifier)의 역할을 한다.

의존 형태소가 초점 표시자 이기는 하지만 초점의 종류에 따라 일대일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6) a. **많아야** 철수는 고기를 [F_{세 마리 정도}] 잡았다.
 b. **또한/역시** [F_{철수-마저}] 오지 않았다.

그리고 (5)에서 보면 의존형태소 -는/은이나 격조사들에 해당되는 초점 운용자에 해당하는 적절한 독립형태소가 없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여기서 Jacobs (1991), Krifka (1992)와 Lee (1995)의 주장에 따라 이들 운용자는 실현되지 않은 illocutionary operator라고 가정한다. 그런데 유독 왜 이들만 그 운용자가 어휘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먼저, -는/은의 경우부터 논의해보자.

일반적인 초점이론에 의하면 초점은 다음과 같은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다.

- (7) a. 신정보를 도입한다.
- b. 대체 항목을 도입한다. (Rooth 1985)
- c. 대체항목과의 특정 대비관계를 보인다. (Lee 1995)

(7c)를 좀 더 설명해보면 초점 운용자가 도입된 대체항목들과 초점사이에 어떤 대비관계가 있는지 기술한다. 가령, (1a)와 같은 경우 대체항목과 대비해 볼 때 초점항목에만 해당 술어가 적용됨을 나타낸다.

- (8) John even_i loves [_{Ri}MARY]

(8)의 경우 초점 *Mary*를 다른 대체항목과 대비해 볼 때 그 다른 대체항목보다 상대적으로 $\lambda x[\text{love}(j,x)]$ 가 적용될 확률이 낮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대체항목과의 대비 혹은 대조는 초점의 기본기능이므로 그를 표현할 초점 운용자를 설정하는 것은 어쩌면 잉여적인 언어행위일 것이다. 이에 비해 단지(*only*), 심지어(*even*)와 같은 초점 운용자는 대조의 기능 외에도 해당 술어를 기준으로 대체항목과 초점간의 관계를 더 추가적으로 상술함으로 독립된 명시적인 초점운용자가 필요하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격조사를 가진 초점은 **배제성(exhaustivity)**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많이 논의 되어왔다. 그러면 이 배제성을 나타내는 초점운용자가 왜 어휘화되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은 화용원리에 의해서 찾을 수 있겠다. 즉 Grice의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은 청자를 위한 격률이다. 청자는 화자가 자신이 요구한 정보에 대한 표현을 들을 때,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화자가 가진 최대한의 관련 정보를 주는 것으로 간주한다. 배제성은 이와 같은 화용적인 해석 전략 (pragmatic interpretation strategy)에 의한 부산물이다. (2a)와 같은 질문의 답으로서 제시된 표현들을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배제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대조를 나타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제성을 나타내는 명시적인 초점운용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자유초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3.2. 배제성과 초점

(10)에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표현들은 배제성을 띠고 있다.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는 격조사의 출현이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Kuno 1973, Lee, J-K. 1991). 이 배제성을 의미론적인 의미로 보는 견해와 화용적으로 보는 견해로 양분되는 Szabolcsi (1981)이나 Groenendijk and Stokhof (1993) 연구들 전자에 속하고 후자에는 Lee, Y-S. (1994,

1995)이 있다. 전자의 주장은 배제성의 의미가 의미적인 것이어서 (한 질문의)대답으로서 초점이 오는 표현은 반드시 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음은 G&S의 배제성 운용자의 정의이다.

$$(9) \text{ [exh]} = \lambda \mathcal{E} \lambda P[\mathcal{E}(P) \wedge \neg \exists P'[\mathcal{E}(P') \wedge P' \subset P]$$

(10) a. 질문: 누가 왔니?/누구를 만났니?
 대답: [F철수-가] 요./[F철수-를] 만났어요.

b.

Q: Who solved the problem?

A: John

$$\begin{aligned} \Rightarrow \text{[A]} &= \lambda \mathcal{E} \lambda P[\mathcal{E}(P) \wedge \neg \exists P'[\mathcal{E}(P') \wedge P' \subset P](\lambda PP(j))(SP) \\ &= SP(j) \wedge \neg \exists P'[P'(j) \wedge P' \subset SP] \end{aligned}$$

배제성을 의미론적인 의미로 취급하는 분석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예를 설명하지 못한다.

(11) a. Q: How many girls showed up at the party?

A: (i) At most two girls./많아야 두 명이 왔어요

(ii) At least two girls/적어도 두 명이 왔어요

(iii) no girls/아무 소녀도 오지 않았어요

(iv) between one and three girls

b. (i) Model: $M = \langle E, F \rangle$ with $E = \{a, b, c, d\}$, $F(\text{girl}) = \{a, b, c\}$, and $F(\text{boy}) = \{d\}$

$$\begin{aligned} \text{(ii) [at most two]} &= \lambda P[\#(P \cap \text{girl}) \leq 2] = \{\emptyset, \{a\}, \{a, b\}, \{b\}, \{b, d\}, \{c\}, \\ &\quad \{c, d\}, \{a, d\}, \{a, b, d\}, \{b, c\}, \{b, c, d\}, \{a, c\}, \{a, c, d\}\} \end{aligned}$$

(ii) **exh** (at most three girls)(S)

$$\begin{aligned} &= \lambda \mathcal{E} \lambda P[\mathcal{E}(P) \wedge \neg \exists P'[\mathcal{E}(P') \wedge P' \subset P](\text{at most three girls})(S) \\ &= \lambda P[[\#(P \cap \text{girl}) \leq 2] \wedge \neg \exists P'[[\#(P' \cap \text{girl}) \leq 2] \wedge P' \subset P](S) \\ &= \lambda P[[\#(P \cap \text{girl}) \leq 2] \wedge \neg \exists P'[[\#(P' \cap \text{girl}) \leq 2] \wedge P' \subset P](S) \\ &= \#[S \cap \text{girl}] \leq 2 \wedge \neg \exists P'[[\#(P' \cap \text{girl}) \leq 2] \wedge P' \subset S] \end{aligned}$$

(iii)에서 주어진 집합의 집합에서 다른 집합 원소의 superset이 되는 것은 배제성의 의미에 의해서 전부 제거해야한다. 그 결과는 공집합만 남게되어 우리의 언어직관과 일치하지 못한다.

c. (i) [at least two] = $\lambda P[\#(P \cap \text{girl}) \geq 2]$

$$= \{\{a, b\}, \{a, b, d\}, \{a, c\}, \{a, c, d\}, \{b, c\}, \{b, c, d\}\}$$

(ii) **exh** (at least three girls)(S)

$$\begin{aligned} &= \lambda \mathcal{E} \lambda P[\mathcal{E}(P) \wedge \neg \exists P'[\mathcal{E}(P') \wedge P' \subset P](\text{at least three girls})(S) \\ &= \lambda P[[\#(P \cap \text{girl}) \geq 2] \wedge \neg \exists P'[[\#(P' \cap \text{girl}) \geq 2] \wedge P' \subset P](S) \end{aligned}$$

위의 (i)의 집합원소들에서 superset이 될 수 있는 집합원소를 모두 제거하면, $\{\{a, b\}, \{a, c\}, \{b, c\}\}$ 이 남아 exactly two girls의 의미와 같아져 이

경우도 우리의 언어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Lee (1995:96-106)에서는 G&S의 배제성 의미가 *at most N* 과 같은 단조 감소 양화사의 경우는 공집합이 산출되고, *at least N* 이나 *between M to N*은 양화사의 경우는 가장 적은 수의 집합만 남겨놓게 됨으로 우리의 언어직관과는 전혀 맞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배제성은 의미론적인 것이 아니라 화용적이며 배제성의 존재여부는 해당 표현이 어떤 종류 (의미)의 초점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배제성은 초점에 배제성을 유발하는 초점 운용자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배제성을 유발하는 초점 운용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2) \text{ASSERT}_{\text{exh}}(\langle B, F \rangle) = B(F) \wedge \forall F' [' \in \text{ALT} \wedge [\neg B(F) \Rightarrow B(F')] \rightarrow \neg B(F')]$$

(11)과 같은 예들은 배제성 초점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초점이 관련되어 있다. 가령, *at least/ at most*가 배제성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는 초점 운용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다음의 예도 역시 대조의 초점이 관여되어 있는 예로서 배제성의 의미는 없다.

- (13) a. 질문: 누가 파티에 왔니?
 대답: [F 철수-는] 안 왔어.
- b. Q: Who called for me today?
 A: Not Bert.

(13)의 예에서 대답의 해석으로 '철수만 오지 않았다'거나 'Bert만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해석은 없다. 다만 정해진 대체항목들과 비교하여 초점에 해당되는 개체에게만 해당 술어의 내용이 적용됨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전형적인 대조 초점이 관여되어 있다. 위의 해석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대조초점 운용자를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14) \text{ASSERT}_{\text{contr}}(\langle B, F \rangle) = B(F) \wedge \forall F' [' \in \text{ALT} \rightarrow F \neq F' \wedge \Diamond(\neg B(F'))]$$

(13a)의 경우에 위의 대조초점 운용자를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derivation를 가질 수 있다.

$$\begin{aligned} (15) \quad & \text{ASSERT}_{\text{contr}}(\langle \lambda x \neg \text{came-to-the-party}(x), \lambda PP(c) \rangle) \\ & = \neg \text{came-to-the-party}(c) \wedge \forall F' [' \in \text{ALT} \rightarrow \lambda PP(c) \neq F' \wedge \Diamond(\neg \lambda x \neg \\ & \quad \text{came-to-the-party}(x)(F'))] \\ & = \neg \text{came-to-the-party}(c) \wedge \forall F' [' \in \text{ALT} \rightarrow \lambda PP(c) \neq \lambda PP(f') \wedge \Diamond(\neg (\lambda P [P(f')])(\lambda x \\ & \quad \neg \text{came-to-the-party}(x))) \\ & = \neg \text{came-to-the-party}(c) \wedge \forall F' [' \in \text{ALT} \rightarrow \lambda PP(c) \neq \lambda PP(f') \wedge \\ & \quad \Diamond(\neg (\neg \text{came-to-the-party}(f')))] \\ & = \neg \text{came-to-the-party}(c) \wedge \forall F' [' \in \text{ALT} \rightarrow \lambda PP(c) \neq \lambda PP(f') \wedge \\ & \quad \Diamond(\text{came-to-the-party}(f'))] \end{aligned}$$

위의 derivation에서 f' 은 F' 의 generator로서 의미유형 (type)이 상승하기 전의 개체유형을

의미한다. derivation의 결과를 보면 철수가 파티에 오지 않았고 철수와 다른 대조항목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는 우리의 언어직관과 부합하는 의미해석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초점에 나타나는 배제성의 해석은 반드시 배제성 illocutionary operator가 초점 운용자로서 연관이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대조와 배제성 초점은 초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별 따로 명시적인 초점 운용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배제성을 띠고 있는 초점의 경우 대체로 격조사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격조사가 탈락된 상태에서도 강한 초점강세가 오면 배제성이 전달될 수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6) a. 질문: 아침에 무엇을 먹었어요?
 대답: 빵/빵-을 먹었어요.
 b. 질문: 어제 오후에 누구를 만났어요?
 대답: 순희/순희-를 만났어요.

결론적으로 격조사의 유무는 배제성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다만 격조사가 나타날 경우는 Lee and Wechsler (1993) 배제성 초점을 해당 표현이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강형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은 유사한 프랑스어의 예이다.

- (17) a. Jean ne donne pas l'argent à [F TOI]; il le donne à [F MOI].
 b. *Jean ne donne pas l'argent à [F TE]; il le donne à [F ME].

끝으로 강조초점과 그 초점 운용사에 대하여 논의해보자. 강조 초점을 포함하고 있는 (2b)나 (8)과 같은 예문은 초점표현이 나타내는 개체에 해당술어 내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다른 대체 항목보다 낮음 나타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도록 강조초점 운용자를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 (18) **ASSERT_{emphatic}** (<B, F>) =
 $B(F) \wedge \text{surprise}(B(F)) \wedge \exists F' [F' \in \text{ALT} \wedge \neg \text{surprise}(B(F'))]$

(2b)의 경우 (18)을 적용 해보면 '철수가 오지 않은' 상황은 현재 발화 맥락에서 놀라운 사실이며, '철수보다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대체 항목이 존재하고 이들의 오지 않음은 놀라운 사실이 아님을 나타낸다. 이는 (2b)와 같은 강조초점이 들어 있는 표현에 대한 우리의 언어직관과 부합됨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강조초점 중에도 초점표시자인 의존형태소(조차, -마저, -도, -까지)에 따라 강조초점이 분화되어 있음을 Lee (1995)에서 논의하고 있다. 참고로 초점운용자 *at least* (적어도), *at most* (많아야)의 의미를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 (19) a. **at-least**(<B, F>) = $\lambda P [\exists F' [F' \in \text{ALT} \wedge F \leq F' \wedge B(F')(P)]$

1) (i) 함수 **surprise**의 단조성: $\forall p, q \exists C [\text{surprise}(p)(C) \wedge q <_c p \rightarrow \text{surprise}(q)(C)]$
 (ii) 해당 명제에 대한 놀라움의 변화: $\forall p, C [C \cap p = C \rightarrow \neg \text{surprise}(p)]$
 위에서 C는 명제 p 혹은 q와 관련된 context를 의미한다.

$$b. \text{at-most}(\langle B, F \rangle) = \lambda P [\exists F' [F' \in \text{ALT} \wedge F \geq F' \wedge B(F')(P)]]$$

위의 초점운용자의 적용실례는 보이지 않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Lee(1995: 123-124)를 참조할 수 있음.

4. 결론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한국어의 초점 표현에 붙은 의존형태소인 특수 조사들은 초점을 확인하는 초점 표시자(focus indicator)의 역할을 함을 보였고, 아울러 독립형태소인 초점사들은 초점운용자의 역할을 함을 보였다. 기존의 많은 초점이론과는 달리 초점을 그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하지 않고 그 전달하는 의미에 따라 초점의 종류를 일부 분류를 하고 한국어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초점 운용자와 초점 표시자를 살펴보았다. 격조사나 특수조사 -는/은의 경우는 화용적인 원리인 양의 격율에 의한 단계함축 (scalar implicature)의 한 부수적인 의미로 나타나는 배제성과 가장 기본적인 초점의 의미인 대조를 나타내는 초점과 관련되어 그 초점 운용자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됨을 지적했다. 이는 또한 Jacobs (1984), Krifka (1992), Hong (1995)과 Lee (1995)같은 선행연구에서 illocutionary operators를 자유초점의 초점 운용자로 가정하는 타당성을 일부 뒷받침하는 예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Jacobs, J. 1991. Focus ambiguities. *Journal of Semantics* 8. 1-36.
- Krifka, M. 1992. Compositional Semantics for Multiple Focus Constructions. *Informations Struktur und Grammatik* (Jacobs, J. ed.), 17-53.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J-K. 1991. Case Markers and Focus in Korean. *Texas Linguistic Foun* 32. 111-122.
- Lee, Y-S. 1994. Exhaustivity, the Scalar Principle, and Focus Semantics. *Proceedings of the 13th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565-580.
- Lee, Y-S. 1995. *Scales and Alternatives: Disjunction, Exhaustivity, and Emphatic Particl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Lee, Y-S. and Wechsler, S. 1994. Accusative Case, Event Quantification and Exhaustivity. Paper read at the Annual LSA Winter Meeting.
- Hong, M. 1995.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Questions and Alternativ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Kuno, S.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MIT.
- Groenendijk, J. and M. Stokhof 1992. A Note on Interrogatives and Adverbs of Quantification. *Proceedings of the Second Conference on Semantics and Linguistic Analysis*, Ohio State Univ. (Baker, C. et al. eds.). 1-30.
- Stechow, A. von. 1990. Focusing and Backgrounding Operators. *Discourse, Particles Pragmatics and Beyond*. Amsterdam: John Benjamins. 37-84.
- Szabolcsi, A. 1981. The Semantics of Topic-focus Articulation. *Formal Methods in the Study of Language*. 513-541.